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기리는 '유통학술상' 제정

유통 발전 위해 매년 상금·운영비 지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롯데지주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국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국내 유통학 및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전(象殿)유통학술상'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한국유통학회에서 새롭게 제정한 '상전유통학술상'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우수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신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을 받아 만들어졌다. 1994년 창립된 한국유통학회는 국내 유통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매년 유통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 대상 1명, 최우수학술상 3명, 신진학술상 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롯데는 학술상의 상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롯데는 이번 상전유통학술상 제정 및 지원을 계기로 국내 유통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신격호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편, 그 뜻을 이어 받아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유통업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 설립 및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 건립하며 국내 유통 산업을 한 단계 도약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유통업이 활발해지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국내 유통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최신 시설과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백화점을 만들어 유통 현대화를 이뤄냈다.

한편 제 1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이 오는 6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평생을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명예회장님의 정신이 '상전유통학술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LG전자 로봇청소기 R9, 장애 아동 지원

LG 로봇청소기가 장애 어린이에 꿈을 선물한다. LG전자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LG 코드제로 R9 씽큐'를 활용한 '아트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인 일러스트 작가 10명이 그린 R9을 공개하고, 판매와 기부를 통해 모금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해피빈 사이트에서 '리워드를 선택하지 않고 후원하기'나 '리워드를 선택하고 후원하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리워드를 선택한 선착순 23명에는 프로젝트 종료 후 R9 씽큐를 순차 배송한다.

모금액은 전액 푸르메재단 산하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한다. 장애 어린이 재활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는 코드제로 R9 씽큐로 만든 작품을 활용해 장애 어린이를 돕는 기부 활동을 시작한다. /LG전자

더 큰일하러 어서 가시게

기자 수첩
김 승 호 〈산업부〉

출입기자들이 전주로 대거 몰려갔다. 지난해 4월의 어느 날이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공공기관 이사장의 첫 기자간담회가 전북 전주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장이 취임하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은 전북 군산으로 이동했다. 한국지엠 사태로 군산지역의 경기가 말이 아니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이날 발걸음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였다.

경상남도 진주에 터를 잡은 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군산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항공사 창업주 출신인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전주 완산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오면서도 언젠가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이후 해당 기관 이사장의 행보는 상당부분이 전주, 군산 등 전북지역에 머물렀다.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전북도청, 군산시 등과는 새만금에서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손을 잡기도 했다.

해당 기관의 서비스 대상은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있고, 몸은 진주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과 자신이 의원을 역임했던 지역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당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자리가 전북 전주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한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업에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기관의 이사장과 같이 차기 국회 입성을 노리는 기관장들이 수두룩하다. 현업에 재직중임에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구에 돈을 돌리고, 잠재적인 유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건 모습이 포착됐다는 뉴스와 소문이 무성하게 들린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 혈세를 쓰는 공공기관에서 녹을 먹고 있는 현역이라는 점이다. 판공비도, 관용차도, 예산도 모두 특정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소를 키울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지금 국민들에겐 사리사욕 챙기지 않는 우직하고 충직한 공복이 필요한 때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1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48년생** 힘든 일이 오후가 되면 풀리기 시작. **60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 **72년생**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게 된다. **84년생** 길이 끊긴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소: **37년생** 사랑인지 망상인지 잘 판단. **49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1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3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

호랑이: **38년생**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50년생** 항상 보던 사람도 오늘은 달라 보인다. **62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 **74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86년생**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토끼: **39년생** 금전 문제로 자식과 의견충돌. **51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63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7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8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용: **40년생** 무더위가 갔어도 부채는 잘 보관. **52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일단 달래라. **6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 **76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계획하는 습관을. **88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

뱀: **41년생** 자기의 의견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53년생**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오래 간다. **65년생** 마른논에 물이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7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많지 않다. **89년생** 약속에 들뜨다 사고 조심하라.

말: **42년생**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을 추천. **54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여 큰 이익을 놓친다. **6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어야 한다. **78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 **90년생** 굳은 신념으로 상대를 잘 설득한다.

양: **43년생** 수많은 마찰 후에 아름다운 보석은 탄생. **5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67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9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91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원숭이: **44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 **56년생** 참신한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는다. **68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8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92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닭: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57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69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하루. **81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93년생**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개: **46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58년생** 하찮은 걱정을 버리고 과감히 행동. **70년생**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82년생** 숫자 7과 노란색이 행운을 준다. **9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야 한다.

돼지: **47년생**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 **59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처리. **71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3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이다. **95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8	9		3	
		2	5		1	6		
	3	9	8		5	2	6	
	4			9			8	
	6	5	4		3	1	7	
		3	1		7	8		
	1		6	5	2		9	

		6	3	9	4	7		
	8	1		2		4	5	
	3		9		5		2	
	2	9		1		8	3	
	6		2		3		4	
	7	5		4		3	8	
		3	8	7	1	5		

스도쿠 정답

1	8	7	3	6	4	9	2	5
6	5	4	2	8	9	7	3	1
3	9	2	5	7	1	6	4	8
7	3	9	8	1	5	2	6	4
2	4	1	7	9	6	5	8	3
8	6	5	4	2	3	1	7	9
9	2	3	1	4	7	8	5	6
4	1	8	6	5	2	3	9	7
5	7	6	9	3	8	4	1	2

7	9	4	1	5	8	2	6	3
2	5	6	3	9	4	7	1	8
3	8	1	7	2	6	4	5	9
4	3	8	9	6	5	1	2	7
5	2	9	4	1	7	8	3	6
1	6	7	2	8	3	9	4	5
9	7	5	6	4	2	3	8	1
6	4	3	8	7	1	5	9	2
8	1	2	5	3	9	6	7	4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최고의 빅데이터

미국의 대학에서 출생한 달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고혈압이 많고 봄에 출생한 사람은 협심증이 많았다. 여름 출생자는 천식 비율이 높았고 가을은 바이러스에 취약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사를 추리해낼 수 있는 팔자술(八字術)의 시선으로 보면 유달리 새롭고 의미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분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래전이라고 함은 수천 년 전부터를 말한다. 그것은 익숙하고 친근한 사주팔자이다. 네 기둥을 바탕으로 삼아 개개인이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어떤 성품인지를 짚어냈다. 타고난 건강은 물론이고 나쁜 일이 있을 시기는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에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관점이라면 명리학은 빅데이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비슷한 작업을 계속 해왔고 미래로 이어가고 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에 따른 운명을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기록하고 추론을 해서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빅데이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는 빅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빌려온다면 조직 개개인 인생 혁명의 성패는 네 기둥에 달려 있다. 중대한 일을 앞두었을 땐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입증을 위해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숱한 수정을 거쳤다. 보물 같은 빅데이터이기에 첨단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을 받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41호